

Print

Islamic Republic



Iranian Supreme Leader Khamenei Photo: Reuters

click here to enlarge text

click here to reduce text

“온건주의 지도자와 극단주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이와 같은 온건파 메뚜기가 극단주의 자들을 필요로 합니까?”

ML의 주의 사항

하메네이(Khamenei): 이슬람 세계를 분열시키는 이스라엘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에게, '시온주의 정권'은 이슬람 세계를 분열시키기 위해 서방 세력이 세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슬람 지역의 문제는 '미국의 침략과 시온주의자들의 범죄가 끝나는 시대'가 도래하자마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디코헨(DudiCohen)

“시온주의 정권의 수립은 이슬람 세계에 지속적인 충동을 일으키기 위해 서방 세력이 자행한 행위였습니다.” 이란의 종교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Seyyed Ali Khamenei)는 이란을 방문 중인 파키스탄의 대통령, 페르베즈 무샤라프(Perves Musharraf)와의 만남에서 월요일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최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한 무샤라프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죄를 자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침략이 끝나고, 시온주의자들의 범죄 자행이 중단되는 시대”까지는 중동과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월요일, 테헤란에서 아흐마디네자드(Ahmadinejad)(왼쪽), 무샤라프와 하메네이 (사진: AFP)

또한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이 약하다는 것은 레바논 전쟁 동안 분명해졌으며, 하마스 정부의 “시온주의자에 대한 저항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돌파구를 보여주도록 돕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나탄즈(Natanz)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328대의 원심분리기

한편, 유럽 외교관들은 월요일 이란이 나탄즈의 지하 핵시설에 164대의 원심분리기를 연결한 카스케이드 2세트를 설치했으며, 이로써 본격적인 우라늄 농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서방 세력과의 대치상태는 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이 카스케이드가 내부에 우라늄을 공급하지 않은 채로 짧은 테스트를 거쳤으며, 이 테스트가 성공적일 경우 핵연료 물질을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28대의 원심분리기는 앞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인 원심분리기 3000대에 대한 시작일 뿐입니다.

이란은 이란 사막 중앙에 있는 대공포로 빙 둘러 요새화되어 있는 방대한 지하 핵시설에서 소위 산업수준 농축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파이프, 전기 케이블과 기타 장비의 설치 작업을 최근 모두 완료했습니다.